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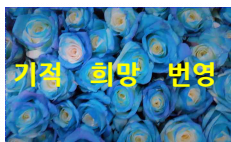
-개요와 목차, 제출 순서에 대하여-

사 건 2018 도 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 고 인 박 근 혜
제 출 인 「거짓과 진실」 대표기자 우종창 외 5인

위 사건에 관하여 제출인은, 상고심 심리 계속 중 제출할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의 전체 개요와 목차, 제출순서 등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다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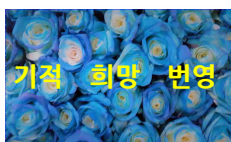
1. 이 의견서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합니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2개의 총론(실체적 총론, 법리적 총론)과 13개의 각론 및 사건 일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2. '실체적 총론'은 유튜브 방송 「거짓과 진실」의 대표기자인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이 사건 초기 보도 시점부터 현재까지 실체적 진실을 추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의 근거가 된 자료들은 아래 3.항에서 밝히는 바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과 공개된 자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청렴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성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의 산'을 쌓아,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를 불러온 이 사건의 서막에 관한 '실체적 총론'의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짓과 진실」
서울 강북구 솔매로 29, 301호(미아동)
대표 기자 우종창(cell:010-5307-5472)
E-mail : wjc57@naver.com

가. 이진동 기자의 최초 보도 내용 및 고영태, 여명숙의 제보 경위

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종편 TV조선이 2016. 7. 13.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행사 때마다 대통령 등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를 주도한 TV조선 사회부장 이진동 기자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고영태를 만난 것은 보도되기 1년 9개월 전인 2014. 10. 경입니다. 만난 장소는 서울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한 호프집이었고, 만남을 주선한 사람은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50대 중반의 여성, 이현정입니다. 이현정은 이진동 기자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경기 안산상록을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2008년), '이진동 캠프'에서 홍보, 구전 등의 선거사무를 담당했습니다.

② 이진동 기자가 2014. 10.경 고영태를 처음 만나 제보 받은 내용은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내 집에 들어와 돈 1억 원과 명품시계를 가져갔다. 최순실을 혼내서 내 돈을 받게끔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진동 기자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한 뒤, 고영태에게 '신사동 의상실'(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입었던 옷을 제작한 곳)에 CCTV 설치를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이진동 기자는 고영태로부터 2014. 11. 2.부터 같은 해 12. 4.까지 1개월 남짓 기간 동안 촬영된 '신사동 의상실' CCTV 영상을 받았는데, 고영태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데다 고영태가 제공하는 자료들이 조잡한 수준이어서, 그 이후 1년 9개월 동안 기사화하지를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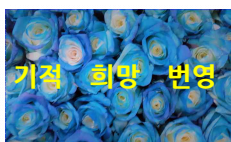
③ 이진동 기자는 고영태를 만나고 난 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6. 5. 초순경 문체부 공무원으로부터 미르재단 설립이 급하게 이뤄졌다는 말을 듣고, 이를 취재하기 위해 2016. 6. 28. 서울 광화문 근처의 음식점에서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여명숙을 만납니다. 여명숙은 광고감독 차은택 후

「거짓과 진실」
서울 강북구 솔매로 29, 301호(미아동)
대표 기자 우종창(cell:010-5307-5472)
E-mail : wjc57@naver.com

임으로 2016. 4. 8. 문화창조융합본부장에 임명되었으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16. 5. 23.자로 해임된 사람입니다.

④ 여명숙은 이진동 기자에게 "문화창조융합본부의 2016년도 예산 1300억 원이 이미 4월에 집행이 끝났다. 남은 예산 97억 원마저도 차은택이 정해 놓은 사업이 있으니 손대지 말라는 지시를 문체부로부터 받았다. 문체부에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예산집행 내역과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오히려 해임되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차은택의 전횡과 비리를 파악한 이진동 기자는 2016. 7. 13.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행사 때마다 대통령 등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차은택 비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차은택 비리를 고발한 이 기사가 이 사건의 최초 보도입니다.

나. 이진동, 윤석열, 김의겸의 잘못된 만남과 사건의 변질ㆍ왜곡

① 그런데, 이진동 기자가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석열에게 취재 내용을 알려주고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을 엮기 위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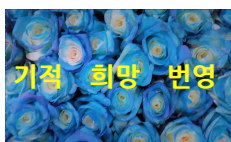
② 검사 윤석열은 평일에는 이진동 기자와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와 이진동 기자를 만났습니다. 윤석열은 이진동 기자에게 "미르재단은 박근혜 정권의 명줄이 달려있는 사건이다. 의상실 CCTV 영상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므로 마음 놓고 보도해도 좋다. 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조언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최초 수사에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기소하였으나, 윤석열이 특검 수사팀장이 되면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혐의를 무리하게 추가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거짓과 진실」
서울 강북구 솔매로 29, 301호(미아동)
대표 기자 우종창(cell:010-5307-5472)
E-mail : wjc57@naver.com

③ TV조선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이 사건은 한겨레신문이 김의겸 기자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취재반을 구성하면서, 김의겸 기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김의겸 기자에게 취재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이진동 기자이고, 김의겸 기자에게 취재 방향을 코치(조언)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이진동, 김의겸 두 기자는 오랜 기간 검찰에 출입한 관계로 검사 윤석열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윤석열은 1960년생, 김의겸은 1963년생, 이진동은 1966년생으로 연배가 순차적으로 비슷하게 연결됩니다.

④ 이진동, 김의겸 두 기자는 2016. 9. 2. 서울 종로 르미에르 빌딩 지하의 한 음식점에서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김의겸 기자는 이진동 기자에게 “내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취재하는 목적은 정권이 바뀌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1년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시점에, 두 기자는 대낮부터 소주 9병을 마시며 정권 교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⑤ 한겨레신문이 이 사건의 실체를 왜곡한 대표적인 기사가 2016. 9. 20.자 1면 톱기사로 보도한 ‘대기업 돈 288억 걷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센터장’이라는 기사입니다. 한겨레신문 특별취재반 기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의 박성오 비서관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동춘 이사장의 이력서를 통해, 정동춘 이사장이 서울대 박사학위 소지자로, CRC 운동기능회복센터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마사지센터 주인인 것처럼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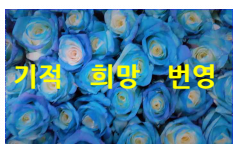
다. 태블릿PC의 등장과 JTBC의 왜곡 보도, 거짓 선동의 시작

① 이 무렵, 종편 JTBC가 사용자 불명의 태블릿PC를 등장시켜, 최서원

「거짓과 진실」
서울 강북구 솔매로 29, 301호(미아동)
대표 기자 우종창(cell:010-5307-5472)
E-mail : wjc57@naver.com

이 이 태블릿PC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태블릿PC를 통해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② JTBC 심수미 기자는 2016. 10. 19.자 뉴스룸 시간에서 "최순실씨는 태블릿PC를 늘 들고 다니면서, 그걸 통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합니다. 이어, JTBC는 2016. 10. 24.자 뉴스룸 시간에서 "박근혜 대통령 연설 중에서 백미로 꼽히는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씨가 사전에 받아보고 30여 군데나 빨갛게 수정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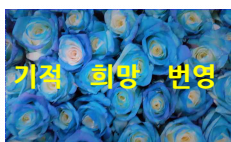
③ 그러나, JTBC 및 그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미디어워치 변희재 고문 사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고단 3660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수미 기자는 "최순실씨가 태블릿PC를 통해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다"라며 자신의 리포트 내용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정에서 JTBC가 당시 보도한 방송 동영상을 그대로 실행·구현하여 공개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심수미 기자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진바 있습니다(2018. 10. 1. 심수미에 대한 증인 신문).

④ 검사가 심수미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증인은 태블릿PC에 문서수정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심수미 기자는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문제의 태블릿PC에 문서 수정을 위한 앱이 깔려 있지 않다는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 누구라도 심수미 기자와 JTBC가 2016. 10. 19.과 10. 24.에 리포트 한 JTBC 방송 내용을 다시 한 번 시청한다면, 심수미 기자의 위와 같은 법정 증언 자체가 기자의 기본책무인 사실확인의무를 저버린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
서울 강북구 솔매로 29, 301호(미아동)
대표 기자 우종창(cell:010-5307-5472)
E-mail : wjc57@naver.com

라. 거짓의 산을 쌓은 저열하고 불편한 내막들

① JTBC가 2016. 10. 24. 태블릿PC와 관련해 허위 보도를 하자, 이에 자극받은 한겨레신문은 그 다음날인 10. 25. 1면 톱기사로 '최순실, 정호성이 매일 가져온 대통령 자료로 비선 모임'이라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 최씨는 이 자료를 가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했다"는 것이 기사의 취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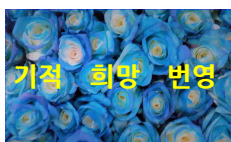
② 이 기사는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 이성한이 2016. 9. 7.부터 9. 25.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6시간 동안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는 것이 한겨레신문의 주장인데, 대통령을 마치 '최순실의 꼭두각시'처럼 묘사한 한겨레신문의 이 기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성한은 한겨레신문 보도가 있은 지 3일 후인 2016. 10. 28. 검찰 조사에서 "한겨레신문 기자가 전혀 허위사실을 기사화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겨레신문은 이성한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정정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고영태, 이성한의 허위 폭로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순실의 취미는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이라는 고영태의 허위 주장과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는 이성한의 허위 폭로 동기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성한은 미르재단 사무총장에 취임하기 2년 전인 2013. 5.경, 의사와 약사 등 수백 명을 강원도의 한 리조트로 초대해 한미약품을 홍보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주관하고, 한미약품에 행사 용역비로 30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약품이 요구를 거절하자 최서원의 힘을 빌려 돈을 받으려고, 고영태와

「거짓과 진실」
서울 강북구 솔매로 29, 301호(미아동)
대표 기자 우종창(cell:010-5307-5472)
E-mail : wjc57@naver.com

공모하여 2016. 8. 19. 최서원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부근의 한강 둔치로 유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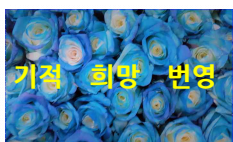
④ 이 무렵, 이성한, 고영태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성한은 한강 둔치 회동이 있기 두 달 전인 6. 29. 미르재단 사무총장직에서 직위 해제돼, 40대 중반의 나이에 수입원(미르재단 사무총장 월급은 실 수령액이 750만원입니다)을 잃었습니다. 고영태는 주식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영태는 이성한과 최서원의 한강 둔치 회동을 주선하고, 그 사례비로 5억 원을 받기로 하였던 것인데, 두 사람이 치밀하게 짠 각본은 최서원의 거부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최서원을 겁박하기 위해 TV조선, 한겨레신문, JTBC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⑤ 위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한강 둔치 회동 때, 최서원의 운전기사 신분으로 따라갔던 류상영입니다. 류상영은 고영태와 한국체육대학 95학번 동기입니다. 류상영은 한강 둔치에서 있었던 밀담 내용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히고, 그것이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한 허위 폭로의 동기이므로 그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⑥ 류상영은 자기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성한이 자필로 써서 고영태에게 준, 한미약품 채권 30억 5천만 원이 기록된 A4용지 2장짜리 서류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용성진 검사에게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성진 검사는 이 자료를 증거목록에서 제외했고, 이에 대한 류상영 진술마저 검찰 조서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대리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뿐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법원에 제출하

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류상영 진술을 검찰이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은 검찰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⑦ 이성한이 한미약품에 30억 5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연합뉴스TV 이경태 기자가 2016. 10. 23. 보도한, '두 얼굴의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H약품에 30억원 요구'라는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약품이 한미약품입니다. 이경태 기자는 "이성한과 H약품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성한이 30억 협상에 최종적으로 실패한 시점으로 알려진 8. 10. 이후, 돌연 미르재단에 대한 폭로를 시작했다는 점"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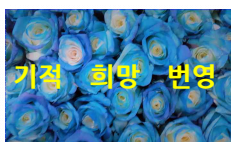
⑧ 미르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의와는 무관하게,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차은택이 공모하여 설립하였습니다. 미르재단 설립의 실무 작업을 맡았던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은 "2015. 10. 23. 안종범으로부터 재단 이름과 재단 이사진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미르재단 이사장 김형수는 이보다 이틀 전인 10. 21. 차은택으로부터 "교수님, 전경련이 만드는 문화재단에 비상근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한과 사무부총장 김성현은 이보다 4일 전인 10. 19.에 차은택이 자신들을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에 임명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⑨ 대통령은 4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화융성 사업을 추진할 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거나 피해를 줄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융성이 국정과제의 하나임을 알고 있는 안종범은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하는 한편으로, 차은택과 공모하여 488억짜리 재단을 1주일 만에 설립하고, 그들의 인맥을 재단 이사진에 선임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⑩ 이 사건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람은 안종범, 차은택 두 사람뿐입니다. 대통령과 최서원이 아닙니다. 차은택은 미르재단 설립이 추진되던 2015. 10. 19.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강원대병원에 입원한 이성한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안종범과 수차 통화를 하였고, 검찰은 그런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안종범과 차은택 사이에 있었던 통화 내용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생각과 의지가 없었던 검찰과 특검은 안종범, 차은택을 대통령을 엮기 위한 수사에 적극 활용하면서 진실이 왜곡·은폐된 것입니다.

마. 실제적 총론 등 향후 의견서 제출 형식과 내용

앞서 밝힌 개략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밝힌 실체적 총론은 금일 제출하는「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緖)」에 이은「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1) 실체적 총론 편」의 형식으로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인 정유라가 관련된 상주 승마사건의 진실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설립 경위 등도 실체적 총론에서 본격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 총론, 13개의 각론, 사건일지 등도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붙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재판부 역시 역사적 평가 대상입니다. 역사는 진실과 정의의 편이라 믿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진실을 묻고, 거짓을 더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3. 유튜브 방송「거짓과 진실」의 대표 기자인,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우종창이 실체적 총론을 작성하면서 근거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이 사건 관련자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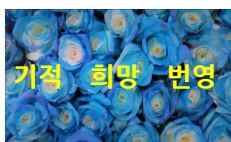
- ▲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 ▲ 공판 조서
- ▲ 검찰 의견서, 특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 ▲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문 등

사건기록(총 30기가 바이트 분량)과

나. 반대편 입장에 있는 이 사건 직·간접 관련자들 중

- ▲ TV조선 이진동 기자가 쓴 책, '이렇게 시작되었다/박근혜-최순실, 스캔들에서 게이트까지'
- ▲ 한겨레신문 특별취재반이 지은 책, '최순실 게이트/기자들, 대통령을 끌어내리다'
-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쓴 책, '끝나지 않은 전쟁'
- ▲ K스포츠재단 노승일이 쓴 책, '노승일의 정조준' 등과
- ▲ 정유라 승마 사건의 최초 발설자 김종대 의원(정의당 소속)이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 기사 등

공개 출판된 서적들과 인터뷰 자료입니다

4. 총론 중 다른 하나는 '법리적 총론'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상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직권파기를 하여야 하는 관련 법리와 그 당위성, 전체 형사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헌법 및 '정당한 법의 원리' 차원에서의 검토, 현행 형사 실체법 및 절차법의 해석론적 관점에서의 총론적 법리검토를 통하여, 제1, 2심 판결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5. 13개 항목에 이르는 각론은 이 사건의 중요 쟁점임에도 1심과 2심에서 전혀 증거로 반영되지 않고 참작되지 않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그 제목과 핵심적인 참작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안종범 업무수첩은 친구와의 통화 내용 기록한 것

: 안종범 업무수첩은 안종범이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과 통화한 내용 등을 기록한 것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며, 총 권수가 몇 권인지에 대해 1심이 잘못 특정 하는 등 증거에 대한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조차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주요 사실의 인정 근거인 증거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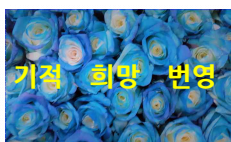
② 정호성이 최서원에게 보낸 문건은 정호성이 새로 정서한 것

: 정호성 비서관이 최서원에게 보낸 문건은 정호성이 청와대 문건을 참고하여 새롭게 정서한 것이고, 공용메일 형태로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는 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밝힘.

③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누가 리커창 총리를 거론했나?

: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을 거론하며 재단 설립을 독촉한 사람은 안종범 혼자이며, 대통령과 최서원, 정호성은 리커창 부분을 거론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그러한 안종범의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밝힘.

④ 대통령 피의자신문조서를 왜 무시했나?

: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면, 대통령은 검사들의 추궁에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과 진실」
서울 강북구 솔매로 29, 301호(미아동)
대표 기자 우종창(cell:010-5307-5472)
E-mail : wjc57@naver.com

각각의 사안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세밀하게 진술한바 있음에도 제1, 2심 판결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함, 대통령에게 귀속된 이익이 전혀 없음을 판결 내용 자체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엄밀히 따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술내용을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밝힘.

⑤ 미르재단 현판식 전후한 시기에 최서원은 독일에 한 달 거주

: 미르재단은 2015. 10. 27. 현판식을 가졌는데, 최서원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최서원은 현판식이 있기 이틀 전인 10. 25.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해, 다음달 11. 22. 독일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전혀 증거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임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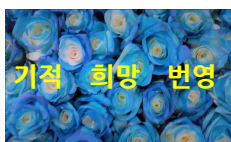
⑥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수주한 광고비는 차은택 회사에서 바로 인출

: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수주한 현대자동차와 KT 광고비가 플레이그라운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차은택이 운영한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에서 광고제작비 명목으로 전액 인출해 갔다는 점을 밝히고, 그러한 객관적인 이해관계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임을 밝힘.

⑦ 상주 승마 사건을 왜곡한 사람은 김종대 의원, 박창일 신부, 안민석 의원

: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왜곡 선동하는 시발점이 된 상주 승마 사건의 왜곡 주체와 그 경위 등을 밝힘.

⑧ 박원오와 박상진의 수상한 금전거래 무시했다

: 승마계의 큰 손 박원오와 대한승마협회장 박상진의 수상한 금전거래를

「거짓과 진실」
서울 강북구 솔매로 29, 301호(미아동)
대표 기자 우종창(cell:010-5307-5472)
E-mail : wjc57@naver.com

무시했다는 점을 밝히고, 정유라 승마 지원에 적극 개입한 박원오의 이해 동기를 무시한 채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밝힘

⑨ SK 뇌물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을 부탁한 사람은 안종범

: SK 뇌물사건에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건의한 사람은 안종범이라는 점을 밝히고,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가거나 뇌물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음을 밝힘

⑩ K스포츠재단 이사진은 안종범과 김필승이 구성

: K스포츠재단은 안종범이 스포츠경영학 전공인 김필승 이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설립했다는 점을 밝히고, 국정과제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그 진의를 왜곡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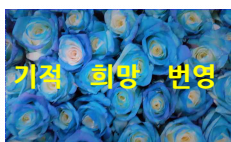
⑪ 상주 승마대회에 정유라 부정행위 없었다

: 대통령과 정유라의 관계에 대한 거짓선동의 도화선이 된 상주 승마대회에 정유라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상주경찰서 수사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밝힘.

⑫ 영재센터 설립은 장시호, 자금 요청자는 이규혁

: 영재센터 설립은 장시호, 자금 요청자는 이규혁이고, 장시호, 이규혁, 등이 자기이해에 따라 사실을 왜곡한 동기와 정황을 밝힘

⑬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심리 미진한 것들

: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심리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고, 공동 피고인 등의 재판에서 쟁점이 된 내용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공동 가공 사실이나

「거짓과 진실」
서울 강북구 솔매로 29, 301호(미아동)
대표 기자 우종창(cell:010-5307-5472)
E-mail : wjc57@naver.com

의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함을 밝힘.

6. 사건 일지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 후에 벌어진 각각의 사건들을 발생 시각, 장소, 참석자, 대화 내용, 당시 최서원의 행적 등을 도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도표로 정리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제출할 예정입니다.

7. 2개의 총론과 13개의 각론 및 사건 일지는 일련번호를 붙여 2018. 10.말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추가할 의견서는 가급적 11월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개된 우리의 당면 현실이 매우 위중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 및 동일 쟁점의 사건이 현재 재판진행 중인바, 어느 때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바랍니다.

2018. 10. 15.

제출자 **「거짓과 진실」**
대표기자 우 종 창
외 5인

대법원 제1부 귀중

「거짓과 진실」
서울 강북구 솔매로 29, 301호(미아동)
대표 기자 우종창(cell:010-5307-5472)
E-mail : wjc57@naver.com